

### 고3 학부모 상담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고3 학부모입니다. 고3이 되니 저도 덩달아 긴장되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얼마 전 아이가 담임 선생님과 첫 상담을 했는데, 아이의 성적대가 애매해서인지 제가 기대했던 만큼 상담 내용이 구체적이진 않았습니다. 3월이 지나면 학부모 상담도 시작될 텐데요. 입시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 고3 학부모 입장에서 상담 전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_김수현(44·서울 강서구 화곡동)

### 입시 제도 먼저 살피고, 지원할 전형·학과·대학과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고민해두세요.

학생 상담은 대부분 3월에 시작합니다. 삼선대학입시연구소 전천석 소장은 “학생이 학교 밖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담임 선생님에게 알려주면 학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서울 송익여고 정제원 교사는 “3월은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파악해나가는 시기이고, 현재까지의 성적을 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논의가 힘들다. 고3 담임 선생님은 물론, 1·2학년 담임 선생님들과 상담해보는 것도 추천한다”고 말합니다.

학부모 상담은 중간고사와 모의고사가 끝나는 4월부터 6월경에 주로 합니다. 이때는 우선 입시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상담에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 지역 ‘진로진학지원센터’ 등의 누리집이나 교육청 유튜브에서 대입 전형의 이해를 돕는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원 전형, 대학, 학과와 대안 등을 미리 고민해두면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 교사는 “한정된 시간에 아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논의할 순 없다. 고3의 경우 성적 범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므로 입시에 대한 감을 잡고 상담에 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이 전형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전형은 어떨지 등을 제시하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

#### MORE TIP

예외가 있겠지만, 고3 때 눈에 띄는 성적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 교사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고1, 2 때 진로 진학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과 성적 관리나 준비할 전형 등을 고려해 고3 때 준비할 것에 대해 상담하면 좋다”고 덧붙입니다.

취재 김지영 리포터 janekim@naeil.com

## 특성화고 다니는 아들, 체대 진학 가능한가요?

특성화고에 다니는 고2 아들이 갑자기 체대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기계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길을 가겠다고 하니, 엄마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걱정이 많아요. 내신은 1등급으로 나름 성적 관리를 성실히 잘한 편이긴 합니다. 수능을 봐야 한다면 인문 계열 과목으로 응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_ 윤진화(기명·48·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 체대는 대부분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해 지원 자격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체대 지원 자격 요건은 현재 고2인 사례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의 전형별 지원 자격 요약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체육 계열은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 배명고 천향욱 교사는 "특성화고 출신이라고 체육 계열 입시가 크게 다르진 않다. 다만 용인대 차의과대 백석대 등 몇몇 대학은 전형에 따라 특성화고 졸업생의 지원이 불가하므로 모집 요강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목표 대학에 수시 전형이 있다면 반영 내신 교과목을 확인하고, 그 과목 중심으로 내신 성적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성화고 수험생도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이 가능하고, 실기 능력이 있다면 실기 전형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천 교사는 "실기 고사는 보통 1년 이상의 연습 기간이 필요하므로 실기 전형에 지원하려면 최소한 2학년 2학기에 시작하는 게 이상적이다. 실기에 소질이 없는 경우라면, 과감히 다른 전형 준비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

#### MORE TIP

수능 점수는 수시와 정시 모집 모두에서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되, 특성화고 수험생은 특히 응시 영역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술·체육 계열은 국어·영어·사회/과학탐구(과목 이상) 응시지만 지원 가능함'처럼 응시 영역을 제한한 대학도 있으므로, 목표 대학이나 지원 희망 학과에서 요구하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취재 총정리 리포터 jahong@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